R&R 27(2021) 29-64 https://doi.org/10.36365/kukirs.2021..27.29

야고보서 3:6의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의 번역과 해석문제

주기철
(고신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Ⅰ. 들어가는 말
Ⅱ. 야고보서 3:6의 번역과 해석의 난점
Ⅲ. 최후 형벌의 장소로서의 게엔나(γέεννα)
Ⅳ. 문맥과 문법을 고려한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해석
Ⅴ. 나가는 말

[초록]

야고보서 3:6의 마지막 분사구문(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은 개역개정 성경에서"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로 번역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궁극적으로 "그 혀가 지옥불에 의해서 불살라진다"는 의미로 번역한다. 이와 같은 번역을 보았을 때, 개역개정성경은 불로 묘사된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source)이 지옥이라고 보고 영어 번역본들은 그 혀를 지옥에 의해 불태워지는 대상으로 본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어번역본들의 번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분사구문이 게엔나가 불로 묘사된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source)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즉, 번역은 보편적인 영어번역본들을 따르면서도 해석은 개역개정성경처럼 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 글은 분사구문인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번역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이 분사구문을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 분사구문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옥'(γέεννα)으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문법과 문맥을 고려하여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 분사구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필자는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는 영어번역본들처럼 번역되어야 하고,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에 대해 논할 것이다.

키워드: 야고보서 3:6, 게엔나, 심판의 장소, 혀의 심판, 야고보서 3:6의 번역, 야고보서 3:6의 해석

논문투고일 2020.07.27. / 심사완료일 2021.02.01. / 게재확정일 2021.03.02.

Ⅰ. 들어가는 말

야고보서 3:6의 마지막 분사구문 '프로기조메네 휘포 테스 게엔네스'(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로 번역된다. 그런데 이 분사구문이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이를테면, ESV는 "그리고[그 혀는] 지옥에 의해 불살라진다"("…, and set on fire by hell"; 비교. "…and is set on fire by hell" [NASB]); KJV는 "그리고 그것[혀]은 지옥의 불에 불살라진다"("…and it is set on fire of hell"); NIV와 NRSV는 "그리고 그것 자체[혀]도 지옥에 의해서 불살라진다"("…and is itself set on fire by hell"); NLT에서는 "왜냐하면 그것[혀]이 지옥 그 자체에 의해 불살라지기 때문이다"("…for it is set on fire by hell itself")로 읽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의 표준새 번역은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 불에 타버립니다"; 새 번역은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공동번역은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라고 번역했다.

야고보서 3:6의 초반부에서 혀를 '불'에 비유하면서 그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라는 표현이 나온다. 야고보서 3:6 전체 문장을 고려했을 때, 개역 개정/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혀라는 불의 출처가 지옥 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과 앞서 제시한 몇몇 한글 번역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혀가 지옥(또는 지옥 불)에 의해서 불살라진다고 보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번역은 그 혀라는 불의 근원(source)이 지옥이라고 보는 것이고, 후자의 번역은 그 혀를 지옥에 의해 불태워지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 번역본들과 몇몇 한글 번역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번역을 하지만 학자 대부분은 그 분사구문을 해석하면서 혀라는 불의 근원(source)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 즉, 번역은 보편적인 영어 번역본들을 따르면서도 해석은 개역

1 J. B. Mayor, *The Epistle of Jam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개정/개역 한글 성경처럼 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 글은 분사구문인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를 한글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야고보서 3:6이 가지는 구문론적인 난점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 이 분사구문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지옥'(γέεννα)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분사구문을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source)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 분사구문이 문법적으로나 문맥 내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 후에 결론적으로 분사구문인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영어 번역본들이나 표준 새 번역 외의 한글성경처럼 번역되어야 하고, 그 해석도 혀라는 불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논할 것이다.[2]

Comments (2nd edition; London: Macmillan, 1897), 114; R. Johnstone, *A Commentary on Jame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1871]), 243-44; M. Dibeliu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1975]), 198; S. Law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London: A. & C. Black, 1980), 151-52; P. H. Davids, *The Epistle of Jame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2), 143-44; R. P. Martin, *James* WBC 48 (Waco: Word Books, 1988), 116; George M. Stulac, *James* IVPNTC 16 (Leicester: InterVersity Press, 1993), 126; D. F. Watson, 'The Rhetoric of James 3:1-12 and a Classical Pattern of Argumentation,' *NovT* 35 (1993), 59-60; L. T. Johnson, *The Letter of James* AB 37A (New York: Dobuleday, 1995), 256-59; K. A. Richardson, *Jame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154; J.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ames* (Chicago: Moody Publishers, 1998), 157; D. G. McCartney, *Jame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190; S.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11), 286.

2 Richard Bauckham은 그의 글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in *The Fate of the Dead: Studies on the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ses* (Leiden: Brill, 1998), 119-31에서 필자와 같이 3:6b의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가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주로 최후의 심판 장소로서의 γέεννα에 대한 연구와 지옥에서의 심판의 형식 중에 '혀가 불에 탄다'는 표현을 포함한 유대 문헌의 병행 연구를 통해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성경 본문의 문법과 문맥을 통해서 혀가 게엔나의 심판의 대상임을 밝히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 야고보서 3:6의 번역과 해석의 난점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자 대부분은 분사구문인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가 3:6의 전반부에서 혀를 불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 해석하면서, 이 구문은 그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로 본다. 여러 학자가 대동소이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들의 견해를 살피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 3:6이 가지고 있는 번역과 해석의 난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먼저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 이 구절이 실제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해석되기 때문이고 또 분사구문인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6 전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3:6에는 주격(nominative) 명사가 5개인데 반해서 직설법(indicative) 동사는 단지 하나(καθίσταται)뿐이고 어떤 경우에는 εἰμί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단어나 표현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즉, 구문론적인 문제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3] 그중에 가장 큰 이슈는 3:6의 문장을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이다.[4] 이는 문장을 나눌 때 제일 첫 문장("혀는 곧 불이요") 이후, 혹은 두 번째 문장("불의의 세계라") 이후,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 문장("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이후에서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5] 이러한 구문 분석이

---

3 더 자세한 설명은 Martin, *James*, 113-14; S. Laws, *The Epistle of James* BNTC (Massachusetts: Hendrikson Publishers, 1980), 148-49; McCartney, *James*, 185-86;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41-44;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280-84; D. J. Moo, *James* TNTC 16 (IL: InterVarsity Press(2015), 158-61.

4 여기서 문장을 나눈다고 할 때는 헬라어 원문(καὶ ἡ γλῶσσα πῦρ· 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 ἡ γλῶσσα καθίσταται ἐν τοῖς μέλεσιν ἡμῶν, ἡ σπιλοῦσα ὅλον τὸ σῶμα καὶ φλογίζουσα τὸν τροχὸν τῆς γενέσεως καὶ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개의 분사가 시작되는 문장 이전의 세 문장을 가리키고, 첫 번째 문장은 καὶ ἡ γλῶσσα πῦρ, 두 번째 문장은 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 세 번째 문장은 ἡ γλῶσσα καθίσταται ἐν τοῖς μέλεσιν ἡμῶν이다.

5 야고보서 3:6의 영어 번역본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끊어 읽은 것은 NRSV('And the tongue is a fire. The tongue is placed…'), NJB('The tongue is a flame too. Among all the parts of the body…'), NEB('And the tongue is in effect a fire.

중요한 이유는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두 번째 문장의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이 첫 문장의 '불'에 대해 동격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술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불의의 세계'가 세 번째 문장의 동사인 καθίσταται의 술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6] 여러 가지 견해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과 '불의의 세계'를 동격으로 보지 않으면서, '불의의 세계'를 세 번째 문장에 있는 동사 καθίσταται의 술어로,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개의 분사구문은 이를 더 상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7]

야고보서 3:6에는 앞서 살핀 구문론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구절 속에 포함된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난점도 존재한다. 여러 가지 중 대표적인 것은 첫째, '불의의 세계'(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즉, 학자들은 저마다 κόσμος가 '장신구'(ornament)의 의미,[8]'총체'('the whole')의 의미,[9] 혹은 '많은'('much' 또는 'in large quantity')의 의미[10]를 가진 것으

It represents among our members the world…')등이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끊어 읽은 것은 ESV('And the tongue is a fire, a world of unrighteousness. The tongue is…'), 세 번째 문장에서 끊어 읽은 것은 NIV('The tongue also is a fire, a world of evil among the parts of the body. It corrupts…'). 이 외에도 더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었다.

6 이러한 문제 외에도 구문 분석에 따라서 '불의의 세계'를 세 번째 문장에 다시 등장하는 혀(ἡ γλῶσσα)의 술어로 보거나, 아니면 '불의의 세계'가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혀(ἡ γλῶσσα)의 술어라면, 네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분사(σπιλοῦσα;'더럽히는')를 세 번째 문장의 혀의 술어로 보기도 함. 더 자세한 논의는 Moo,*James*, 158-61; McCartney, *James*, 184-91를 보라.

7 따라서 "그리고 혀는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불의의 세계가 되었고, 온몸을 더럽히며, 삶 전체에 불을 놓는다…"로 번역된다(비교. Moo, *James*, 159-60). C. L. Blomberg and M. J. Kamell, *Jame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157-58; Davids, *James*, 141-44도 보라. 비교, McCartney, *James*, 188.

8 '세계'(κόσμος)라는 단어가 '장신구'(Ornament)의 의미로 사용되어 'the ornament of the wickedness'('악의 장신구')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악하거나 불의한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의미이다(이러한 의미는 이른 시기의 헬라 주석가들 특히 Isidore of Pelusium[A.D. 400년경 활동]에 의해 제기되었다). Mayor, *The Epistle of James*, 110; Laws, *James*, 149; McCartney, *James*, 186을 보라. Κόσμος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3:3에서 장신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매카트니가 옳게 지적했듯이, 이 단어가 야고보서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나타낼 때(약 1:27; 2:5; 4:4) 부정적으로 쓰인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로부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McCartney, *James*, 186. Moo, *James*, 159도 보라).

9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J. Owen, Edinburgh: T. Constable, 1755), 320은 '세계'(ὁ κόσμος)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자인 야고보가 혀의 작음과 이 세계의 광대함을 연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가냘픈 육체가 그 안에 악의 모든 세계(the

로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나 가장 개연성 있는 견해는 ὁ κόσμος가 야고보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사용된 것과 같이(약 1:27; 2:5; 4:4),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말하고 따라서 ὁ κόσμος가 속격인 τῆς ἀδικίας와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불의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11]

둘째, 세 번째 문장에 나타나는 동사인 καθίσταται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즉, 이 동사가 중간태로서 재귀적인 용법으로 쓰였는지, 혹은 수동태로 쓰이면서 '임명되다'('be appointed')의 의미인지 아니면 '되다'('be made' 또는 'becomes')는 의미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견해인 수동태의 '임명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자도 부정적인 견해인 듯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임명한' 주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야고보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12] 그러나 나머지 두 견해(첫 번째인 중간태 재귀적 용법과 세 번째인 수동태의

---

whole world)를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칼빈을 비롯한 19세기 학자 대부분이 세계(ὁ κόσμος)를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적 의미의 '총체'('the whole')의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κόσμος가 지속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약 1:27; 2:5; 4:4) 중립적인 '총체'라는 의미는 부적절하다고 학자들이 옳게 지적한다(McCartney, *James*, 186-87; Martin, *James*, 114; Blomberg and Kamell, *James*, 157-58; Laws, *James*, 149-50; Davids, *James*, 142를 보라).

10 이러한 의미는'세계'라는 단어가'많은 양'('a large quantity')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G. Bra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ames, 1-2 Peter, 1-3 John, Jud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0), 40; McCartney, *James*, 187을 보라). 그러나 Mayor 외의 다른 학자들이 옳게 설명하는 것과 같이'돌봄의 세계'('a world of cares')가 '많은 돌봄'('many cares')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야고보서 3:6에는 정관사(ὁ)가 있어서 ὁ κόσμος는 '그 세계'에 대한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Mayor, *James*, 110; McCartney, *James*, 187을 보라).

11 여기 사용된 명사 속격인 τῆς ἀδικίας는 명사로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질적 속격'(qualitative genitive)의 역할을 하면서 '악한(또는 악의) 세계'를 가리키고, 정관사 ὁ가 있어서 막연히'어떤 한 악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더 자세한 논의는 McCartney, *James*, 187; Blomberg and Kamell, *James*, 157-58; Laws, *James*, 150; Davids, *James*, 142; McKnight, *James*, 281-82를 보라).

12 Chris A. Vlachos, *James: Exegetic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Nashville: B & H Academic, 2013), 111; McCartney, *James*, 187; Blomberg and Kamell, *James*, 158을 보라.

'되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는 없는 듯하다. 첫 번째를 지지하거나[13] 세 번째 지지하거나[14] 아니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15] 중간태로 보면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위치하다'(to set)라는 의미로 보아도 될듯하다.

야고보서 3:6에 포함된 또 다른 해석의 난제 중 하나는 '삶의 수레바퀴'(τὸν τροχὸν τῆς γενέσεως)의 해석문제이다.[16]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17]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이 표현의 근원이 어디였든지 간에 야고보가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고 따라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 혹은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18]

---

13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 4:4에도 쓰인 καθίσταται 동사가 중간태 재귀적 용법으로 쓰였고, 야고보서 3:6의 것도 이와 유사할 뿐 아니라 중간태 재귀적 용법으로 해석될 때 본문에서 말하는 혀의 교만함과도 가장 잘 어울리기에 중간태 재귀적 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다(Laws, *James*, 149; Moo, *James*, 159-618; Blomberg and Kamell, *James*, 158). 비교. Dibelius, *James*, 194; J. H. Rop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 T. & T. Clark, 1973(1916)], 235는 '나타내다'(present itself)로 번역하고, J. B. Adamson, *The Epistle of Jam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9[1976]), 143은'서다'(stand)로 번역한다.

14 학자 중에는 καθίσταται가 나타난 성경 본문(히 5:1; 8:3)들이 분명 수동태인 것과 일반 헬라 문헌에서 καθίσταται가 중간태로 쓰이면 "자신을 임명하다"(to appoint oneself)는 의미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임명하다"(to appoint for oneself)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하면서, 야고보서 3:6의 것은 수동의 의미 중에서 '되다'(is made, becomes, is established)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Mayor, *James*, 111-12; McCartney, *James*, 187-88; Richardson, *James*, 152, n. 18을 보라. 비교. McKnight, *James*, 283).

15 Martin, *James*, 115는 별다른 논의 없이 수동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으나 중간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16 BDAG,'Τροχός,' 1017-1018. 이 단어는 '바퀴'(wheel), '주기'(cycle), 또는 '경로'(course) 등의 의미가 있다.

17 학자들은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오르페우스교(Orphic)나 피타고라스(Pythagoras)의 윤회사상(영혼은 죽지 않고 한 육체가 죽으면 또 다른 육체로 지속해서 옮겨져 지속해서 갇혀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상)을 나타내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필로(Philo)와 같은 철학자는 이를 운명론적 필연(fatalistic necessity)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야고보서의 그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더 자세한 논의는 Dibelius, *James*, 196-98; Ropes, *James*, 235-39; Laws, *James*, 150-51을 보라).

18 Blomberg and Kamell, *James*, 158; Martin, *James*, 115; Davids, *James*, 143;

이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혀가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빈틈이 없고 지대한지를 나타낸다고 본다.[19]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야고보서 3:6은 구문론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기 사용된 몇 가지 애매한 표현들 때문에 해석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야고보서 3:6의 전후 문맥과 문법적 분석,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전달된다고 본다. 다음 단락에서는 먼저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γέεννα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Ⅲ. 최후 형벌의 장소로서의 게엔나(γέεννα)

게엔나(γέεννα)는 히브리어 '게-힌놈'(גֵּי־הִנֹּם)에서 유래한 아람어 '게힌놈'(גֵּהִנָּם)의 헬라어 음역으로 원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גֵּי בֶן־הִנֹּם, 수 15:18) 또는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גֵּי בְּנֵי־הִנֹּם, 왕하 23:10)가 축약된 것이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걸쳐 있는 와디 엘 라바비(Wadi er-Rabibi)로 알려진 계곡을 일컫는 명칭이기도 하다(수 15:8; 18:16; 대하 33:6; 사 31:9; 66:24; 렘 32:35).[20] 구약에 나타난 '게힌놈'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21]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걸쳐 있던 계곡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역할을 했고(수 15:8; 18:16),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 북쪽의 경계였다(느 11:30). 둘째, 이스라

McCartney, *James*, 189-90; Stulac, *James*, 125-26; McKnight, *James*, 285; Johnstone, *James*, 243-44; W. Barclay,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87-88.

19 Stulac, *James*, 126.

20 TDNT, γέεννα, 657-58; NIDNTT, γέεννα, 548.

21 참고. 강대훈, "마태복음의 게헨나 연구," 「신약연구」14(2015), 10-11.

엘의 바벨론 포로 전, 특히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는 우상숭배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곳에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일도 행해졌다(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렘 19:56; 32:35).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한 후에 이 골짜기는 동물이나 범죄자의 시체 등과 같은 부정한 것들이 버려지는 장소였다. 그리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로 여겨졌다(사 66:24. 참조. 막 9:43-48). 셋째,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장소로 여겨졌다(렘 7:30-33; 19:1-13; 32:34-35. 참조. 사 31:9; 66:24). 구약성경뿐 아니라 제2 성전기의 유대 문헌 또한 게힌놈을 최후의 형벌이 시행될 곳으로 보되, 지상의 특정한 장소를 넘어서 우주적인 장소로 묘사한다.[22]

게엔나(γέεννα)가 신약성경에서는 12회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3:6에서 1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공관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난다(마 5:22, 29, 30; 10:28; 18:9; 23:15, 33; 막 9:43, 45, 47; 눅 12:5). '게엔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장소가 곧 불의 장소이기 때문에(마 5:22; 18:9; 막 9:43), 어떤 곳에서는 게엔나가 '풀무불'(the blazing furnace; 마 13:42, 50)이나 '영원한 불'(the eternal fire; 마 25:41), 또는 '불 못'(the fiery lake; 계 19:20)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25:41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한 것과 요한계시록 20:10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나 마귀, 그리고 그의 하수들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불' 곧 게엔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23] 이는 마귀가 게엔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의 근원이 아니라 마귀 역시 게엔나의 불에 의해서 불살라질 존재임을 암시한다.[24] 따라서 게엔나를 악한 불을 내뿜는 근원으로써 불에 비유되는 혀의 악함을

---

22 강대훈, "마태복음의 게헨나 연구," 12-16.
23 NIDNTT, γέεννα, 548.
24 Bauckham,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120, 은 "1세기 유대인과

내뿜는 근원으로 보는 것은 어색하다.

'게엔나'가 등장하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23:33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1-33은 야고보서 3:1-12와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25] 첫째,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관련하여 교훈하면서 "그들[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23:3), "...사람에게 랍비[선생]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23:7b-8),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23:10)라고 말한다. 이는 야고보서 3:1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둘째,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반복해서 외식하는 자들로 묘사하는데(마 23:15, 23, 25, 27, 29), 이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야고보서 3:1-12의 말씀과도 유사하다. 셋째,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일곱 가지 화(禍)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 대한 '심판'(κρίσις)을 선포한 것은 야고보서 3:1에서 선생들에 대해 더 큰 심판(κρίμ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26] 넷째, 마태복음 23:33에서 심판의 장소로

기독교인들은 게엔나를 사단이 거하거나 악의 세력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곳은 오히려 마지막 심판 이후나 죽음 이후에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였다... 게엔나의 불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방편이나 이미지이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25 Martin, *James*, 108, 은 가르침의 책임을 맡는 것이 본질적으로 만만찮은 것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마태복음 23:1-13과 누가복음 20:47을 예로 든다. McCartney, *James*, 179, 는 야고보서 3:1은 마태복음 23:9-10의 예수님의 경고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McKnight, *James*, 273, 역시 야고보서 3:1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모두를 비판할 때,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외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병행(parallels)에 관해서는 M. H. Shepherd, Jr., "The Epistle of James and The Gospel of Matthew," *JBL* 75(1956), 40-51을 참고하라.

26 Anthony J. Saldarini, "Delegitimation of Leaders in Matthew 23," *CBQ* 54 (1992), 679,는 마태복음 23:32의 말씀과 이어지는 위협(36), 애통해하는 것(37-39), 그리고 감람산 종말 강화(24-25장) 모두는 앞서 제시한 모든 갈등의 최종 해결책으로서 종말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말한다. John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NIGTC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5), 942-43, 는 마태복음 23:33이 앞서 말했던 화(禍)의 결론으로서, "너희가

게엔나를 언급한 것은 야고보서 3:6에서 혀를 불태울 심판의 장소로서 게엔나를 언급한 것과도 유사하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게엔나를 연구한 강대훈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위선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최종 대답은 심판이며, 심판의 장소는 게헨나다(참조. 5:22, 29-30; 18:9)"라고 바르게 지적한다.[27]

디벨리우스(M. Dibelius) 외 몇 명의 학자들은 사탄이 게엔나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는 아브라함의 묵시록(*Apocalypse of Abraham*), 특히 14:5과 31:5을 근거로[28] 사탄이 악의 영역인 게엔나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사람의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을 추론하기 위해서 지옥의 불을 언급했다고 주장한다.[29]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보캄은 아브라함의 묵시록 14:5과 31:5가 보여주는 분명한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인 것, 그리고 지옥에서 사탄이 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흔치 않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옥에 아자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마지막 날의 미래이고, 그가 생산해내는 불은 죄인들의 처벌을 위한 것이지 이 땅의 악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바르게 말한다.[30] 이 외에도 보캄은 랍비 문헌(Arak. 15b;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라는 3:7의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와 같은 말이지만 더 비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그는 마태복음에 '심판'(12:41, 42), '심판의 날'(10:15; 11:22, 24; 12:36)과 같은 표현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지옥의 판결[심판]로부터'라는 표현은 심판의 유대적 표현이라고 한다(943, n.102). 참고. M. E. Taylor, "The Structure of James," *CBQ* 68(2006), 696.

27 강대훈, "마태복음의 게헨나 연구," 24-25.

28 아브라함의 묵시 14:5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악한 영의 두목인 아자젤을 저주하라고 명한다("Say to him, 'May you be the fire brand of the furnace of the earth! Go, Azazel, into the untrodden parts of the earth"). 그리고 31:5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And those who followed after the idols and after their murders will rot in the womb of the Evil One—the belly of Azazel, and they will be burned by the fire of Azazel's tongue"). 참고. https://www.marquette.edu/maqom/kuliktranslation.html. 2020.7.10. 접속.

29 Dibelius, *James*, 198-99; Davids, *James*, 143; Martin, *James*, 116; McCartney, *James*, 190-91.

30 Bauckham,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121.

b. Sanh. 52a; b. Shab. 104a)에서 나타나는 '게헨나의 왕자'(Prince of Gehenna)를 악의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31] 이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옥을 다스리는 천상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종(angelic servant of God)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32] 만약에 앞서 열거한 문서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게엔나가 사탄이나 악의 세력이 거주하는 곳으로 묘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들이 구성된 연대가 대부분 1세기 후반이나 2세기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게엔나가 사탄의 거주지이거나 그가 그 곳에서 다스린다는 개념은 고대 유대 문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33]

Ⅳ. 문맥과 문법을 고려한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해석

앞서(1.1. 야고보서 3:6의 번역과 해석의 난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야고보서 3:6의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본 구절이 '혀'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을 이미지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문장 내에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분사구인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의미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3:6의 문맥과 문법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한다.

1.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의미(학자들의 견해)

---

31 Laws, *James*, 152; Davids, *James*, 143.

32 Bauckham,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122, 은 또한 마태복음 23:15의 '지옥 자식'(υἱὸν γεέννης)을 사탄의 자식으로 보려는 시도에 대해서(참고. C. Leslie Mitton, *The Epistle of James*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66], 129), 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someone destined for Gehenna)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33 Bauckham,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122, 은 게엔나가 사탄의 거주지이거나 사탄이 그곳에서 다스린다는 생각은 2세기 이후에 서서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발전된 것으로 본다. 참고. J. A. MacCulloch, *The Harrowing of Hell* (Edinburgh: T. & T. Clark, 1930), 227-34, 345-46.

야고보서 3:6의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스툴락(G. M. Stulac)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야고보서 3:6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저자인 야고보가 제어되지 않은 혀의 파괴적인 이미지를 점점 발전되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34] 즉, 첫 번째 구(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는 불순한 혀 속에 있거나 혀가 만들어 내는 셀 수 없는 악에 대해서,[35] 두 번째 구(ἡ γλῶσσα καθίσταται ἐν τοῖς μέλεσιν ἡμῶν, ἡ σπιλοῦσα ὅλον τὸ σῶμα)는 제어되지 않는 혀에 의해서 한 사람 전체가 더럽혀질 수 있음에 대한 경고, 세 번째 구(καὶ φλογίζουσα τὸν τροχὸν τῆς γενέσεως)는 두 번째 것에 더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고 확장하고, 네 번째 구(καὶ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는 절정으로서 혀의 악의 근원이 결국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본다.[36] 이와 비슷하게 리차드슨(K. A. Richardson)은 각 사람에게 불의의 세계의 원동력이 혀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의는 "한 사람의 모든 외적인 관계에까지 퍼져나간다"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악한 말에 의해서 한 번 왜곡된 자는 세상의 더 큰 악의 흐름의 한 부분이 된다. 이처럼 악한 말은 그것의 참 본질이 지옥 그 자체의 확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37] 리차드슨은 작은 불인 혀가 큰 악의 흐름의 한 부분인 것(또한, 약 3:5의 작은 불꽃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 불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지옥이라고 보는 듯하다. 스툴락과 같이 리차드슨도 야고보서 3:6 후반부에 나타나는 세 개의 분사구의 관계를, "부패한 말이 부패한 육체를 낳고, 부패한 육체는 인생 전체를 악한 길로 빠지게 하고, 그 악한 말의 파괴성은 지옥의 파괴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설명한다.[38] 이 두 견해의 공통적인 난점은 왜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라는 문장이 혀가 가진 악의(혹은 파괴성의)

---

34 스툴락은 '혀는 곧 불이요' 이후에 이어지는 네 개의 구(phrase)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혀의 파괴적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묘사한다고 본다. 즉,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네 개의 구를 나누면'불의의 세계',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가 된다(Stulac, *James*, 125-26).

35 각주 9를 참고하라. 스툴락은 '세계'라는 단어를 '많은 양'(a large quantity)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36 Stulac, *James*, 126.

37 Richardson, *James*, 153-54.

38 Richardson, *James*, 154.

근원을 지옥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리차드슨이 "부패한 육체가 인생 전체를 악한 길로 빠지게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야고보서 3:6의 세 개의 분사구의 주체는 혀이지 부패한 육체가 될 수는 없을 듯하다.[39]

마틴(R. P. Martin) 역시 야고보서 3:6의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가 혀가 가진 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 본다. 그는 '지옥'에 해당하는 표현인 γέεννα가 힌놈의 골짜기(Valley of Hinnom)를 지칭하며 이 장소는 악명 높은 곳으로 사탄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사실을 지적한다. 그뿐만 아니라 γέεννα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으로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계곡은 예루살렘의 남쪽 골짜기로서 다음 생의 심판 장소로 여겨졌다는 사실도 언급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불의의 세계의 근원이 사탄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야고보가 제어되지 않는 혀가 뿜어내는 악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본다.[40] 마틴은 γέεννα라는 장소가 가지는 의미, 곧 이 장소가 심판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지적하였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를 언급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악의 세력과 혀가 가진 악의 근원이 같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γέεννα라는 장소가 주는 직접적인 의미를 희석시키는 듯하다. 만약 야고보가 3:6에서 혀가 가진 악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것을 말하기 원했다면 야고보서 2:19에서 '귀신들'을 언급하고 야고보서 4:7에서 '마귀'를 언급한 것같이 혀가 가진 악의 근원이'사탄'이라고 직접 밝혔을 가능성이 더

---

39 스툴락은 혀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의 악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묘사했다면, 리차드슨은 악한 혀가 육체를 악하게 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 악한 육체가 인생 전체를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야고보서 3:6에서는 '혀'의 악함과 혀가 미치는 영향력 및 파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40 Martin, *James*, 116, 은 야고보서 3:6을 요약하면서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혀를 신자들의 지체에 치명적인(사악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이라고 말하고, 이는 그것[혀]이 악한 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마틴의 이러한 언급은 혀의 악함을 지적하는 의미에서는 맞겠지만 '혀' 자체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하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10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혀' 자체가 '악한 이(자)'로부터 왔다면, 그 입에서 '찬송'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크다.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는 3:6의 구문과 의미를 논하면서 야고보서 3:5a가 앞선 구절의 비유를 설명하듯이 3:6이 3:5b의 비유를 설명한다고 본다.[41] 그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가 하나의 설명을 구성하며, 여기 포함된 이질적인 듯한 두 요소인 '불의의 세계'는 5b의 '나무'(forest; ὕλη)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지체 중에서'는 혀가 몸 전체를 '더럽히는'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두 요소가 함께 '더럽히는'에 해당하는 표현(σπιλοῦσα)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42] 이어서 등장하는 '불사르나니'라는 표현은 인간의 존재 전체에 행사하는 '혀'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설명하면서 디벨리우스는 '불사르나니'('setting on fire'; φλογίζουσα)라는 표현으로부터 혀의 영향력의 근원이 사탄임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동사의 태를 바꾸어 사용한 언어 유희가 주는 의미이고,[43] 둘째, 여기서 말하는 '지옥의 불'은 세상의 심판 때에 주어질 불의 형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옥 불을 언급한 이유가 악의 영역으로부터 불을 이끌어 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지옥에는 사탄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44]

---

41 어떤 이들은 구문 해석의 난해성을 이유로 약 3:6의 시작 부분인 καὶ ἡ γλῶσσα πῦρ· 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디벨리우스는 제일 첫 표현('혀는 곧 불이요')과 '불사르나니'와 '불에서 나느니라'라는 표현이 전체적으로 같은 주제를 전달한다고 보고 καὶ ἡ γλῶσσα πῦρ· 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Dibelius, *James*, 194-95를 보라).

42 두 요소가 하나로서 '더럽히는'에 해당하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세계'(the world)가 주어이고, '혀'(the tongue)는 동격이거나 이후에 삽입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그 의미는 "그리고 그 불의의 세계가 우리 지체 중에 혀로(혀를 통해) 존재한다"가 된다(Dibelius, *James*, 195를 보라).

43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불사르나니'(setting on fire; φλογίζουσα)와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being set on fire by Gehenna;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가 같은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사용한 언어유희(wordplay)를 통해 대조를 이룬다고 옳게 지적한다(Dibelius, *James*, 198을 보라).

44 Dibelius, *James*, 198, 는 "사탄이 거기 머문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묵시록(Apocalypse of Abraham)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디벨리우스 역시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를 혀라는 불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듯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사용한 언어 유희는 잘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 유희가 주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혀를 주체로 하여 '불사르다'(φλογίζω)에 해당하는 동사의 능동태 분사(φλογίζουσα)를 사용하여 그 혀가 '삶의 수레바퀴'(인생의 삶 전체)를 불사른다는 것은, 작은 혀가 인간의 삶 전체를 파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45]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혀를 주체로 하여 '불사르다'는 동사의 수동태 분사(φλογιζομένη)를 사용하면서 그 불사르는 주체가 지옥(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이라면, 이는 혀의 불이 지옥의 불의 영향을 받거나, 혀의 불의 근원이 지옥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혀'가 지옥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파괴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즉, 혀의 불이 태우는 것과 혀가 태움을 당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46] 둘째, 디벨리우스는 야고보서 3:6에서 언급된 '지옥 불'이 세상의 심판 때에 주어질 불의 형벌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디벨리우스가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문장에서 현재형 주동사에 현재 시제의 분사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야고보서 3:6에서의 저자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실 혹은 금언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의 시재가 현재가 되어도 현재나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야고보서 3:6에서 언급된 '지옥 불'은 미래적 심판의 불로 볼 수도 있다.[47]

여러 학자와 마찬가지로 매카트니(D. G. McCartney)도 야고보서 3:6의

---

45 야고보서 3:5에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는 표현은, 단순히 작은 것의 큰 영향력을 넘어서 작은 것의 큰 파괴력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3:6에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라는 표현은 혀가 한 인생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6 디벨리우스는 고대 세속 문서(Plutarch나 Philo의 글)에서 불의 비유가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열정의 본성과 그 위험성'(the nature and danger of the passions)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본성의 위험성은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파괴성'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Dibelius, *James*, 192-93. 각주 58, 59를 보라).

47 Martin, *James*, 116.

'지옥 불'의 의미에 대해 논하면서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 장소'를 말할 때 언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옥은 환유적 표현으로, 그것의 궁극적 거주자는 마귀 혹은 더 일반적으로는 악"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지옥이 악의 운명이 아니라 근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가장 이른 예로 본다(마 5:22; 18:9).[48] 매카트니는 또한 야고보서 3:15에서 세속적 지혜가 귀신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곧 세속적 지혜의 근원이 귀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야고보서 3:6에서 세속적 말이 지옥에 의해서 불붙는 것과 같다고 한다.[49] 매카트니의 주장과 같이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지옥의 불'이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표현이 사용된 마태복음 5장이나 18장의 문맥은 온전히 '심판'에 대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두 본문 모두에서 형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실족하게 하거나 악한 말을 할 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범죄 하게 할 때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께서 이 두 본문을 통해 악의 근원이 '지옥 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옥 불' 안에 마귀(혹은 사탄)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야고보서 3:15에서 말하는 '땅 위의 지혜'가 '귀신의 것'이라는 표현은 그 지혜가 '귀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귀신의 행동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땅으로부터의 지혜의 근원을 말할 수도 있고,[50] 땅으로부터의 지혜로 행사하는 인간의 행위가 귀신의 행위와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다.[51]

---

48 McCartney, *James*, 190-91.

49 McCartney, *James*, 191, 는 '세속적 말이 지옥에 의해 불붙는다'라는 표현에서 '불붙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심판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근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듯하다. 즉, 야고보서 3:15(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을 근거로 세속적 지혜의 근원을 '귀신'으로 본 것과 같이 지옥을 세속적 말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50 McKnight, *James*, 307-308; Adamson, *James*, 152-53; Stulac, *James*, 136; Moo, *James*, 170-71; Blomberg and Kamell, *James*, 174.

51 Laws, *James*, 161-163; McCartney, *James*, 201; Martin, *James*, 132. 비교. Richardson, *James*, 166-67은 마태복음 16:16-23에서 베드로가 계시적인 말(revelatory word)을 함과 동시에 귀신적인 말(demonic word)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귀신적'(demonic)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귀신적인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성령에 대한 모든 인간의 대적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본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도 그 대적의 근원이 '귀신적'인

앞서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 외에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견해들이 많이 있고, 학자 대부분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로 번역된 것을 '혀라는 불'의 근원이 지옥 불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학자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표현인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있을 법한 의미와 혀의 이미지를 연결시킨다. 즉, '지옥'에는 악의 대명사인 사탄이 머무는데 이는 '불의의 세계'로 표현된 혀와 연결되고, '지옥 불'의 이미지 또한 '불'로 묘사된 '혀'와 연결된다. 이 혀가 내뿜는 불, 곧 혀의 불이 지옥 불에 의해서 탄다는 말은 말 그대로 혀의 불이 지옥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있으므로 '혀의 불' 또한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지하고 야고보서 3:6의 문맥과 문법적 분석을 하려 한다.

2. 야고보서 3:6의 문맥을 고려한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6이 구문론적으로 번역과 해석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본 구절에서 '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불'과 '불의의 세계')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야고보서 3:6의 혀가 가진 이미지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의 '더럽히는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야고보서 3:6의 전후 문맥이 혀가 가진 악한 영향력 즉, 혀의 더럽히는 이미지를 점점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본다.[52] 심지어 '불사르나니'라는 표현을 '온몸을 더럽히고'의 병행으로 보면서 혀가 온몸을 더럽히는 것에서 존재 자체를 더럽히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으로 본다.[53] 이러한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과 같은 혀'의 태우는 이미지와 '불의의 세계인 혀'의 더럽히는 이미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쩌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혀의

것과 상관없이 '귀신적'이라는 말이다.

52 Dibelius, *James*, 193-98; McCartney, *James*, 188.

53 McKnight, *James*, 284-85.

두 가지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혀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악한지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설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불'의 이미지가 이미 3:5b에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3:3-5a에서 말(horse)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 큰 배를 운행하는 작은 키의 이미지를 사용한 후에 마지막으로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혀의 능력에 대해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S. Laws)는 야고보서 3:3의 '재갈'은 '통제'를 강조하고, 3:4의 '배의 키' 이미지에는 통제의 의미가 남아 있으면서 작은 물체가 큰 것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3:5b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음의 대조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통제의 개념에서 '파괴적 힘'(destructive power)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54] 맥나이트(S. McKnight) 역시 재갈과 말의 유비는 작은 것의 큰 영향력(great impact), 배와 키의 유비는 여기에 더해서 안내(guidance)를, 그리고 작은 불과 숲의 유비는 작은 것의 큰 영향력에 파괴(destructiveness)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본다.[55] 로스나 맥나이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각의 이미지나 유비를 이와같이 구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이미지가 불의 파괴적인 힘(destructive power)을 강조한다고 지적한 것은 옳아 보인다. 스툴락(G. M. Stulac)은 도끼의 이미지를 예로 들면서, 도끼 이미지는 작은 기구로 큰 숲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야고보서의 저자가 "[도끼와 같이] 독립된 파괴 행동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파괴를 묘사하기로 했다"라고 바르게 말한다.[56] 이 외에도 많은 학자가 '불'의 이미지를 통제할 수 없으면서도 파괴적인 혀의 역할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57]

---

54 Laws, *James*, 148.

55 McKnight, *James*, 280.

56 Stulac, *James*, 124, 은 계속해서 "도끼는 한 번에 나무 하나를 파괴하지만, 혀는 하나의 악한 행위로부터 파괴를 시작해서 원래의 행동 이상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한다.

57 Blomberg and Kamell, *James*, 156-57; Martin, *James*, 113; McKnight, *James*, 184-85; Laws, *James*, 148-49; Davids, *James*, 144. 비교. Dibelius, James, 191-95는 이 불의 이미지가 '통제할 수 없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야고보서 3:6에서 불의 파괴적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 문장의 마지막 두 분사구에 반복해서 사용된 동사 '불사르다'(φλογίζω)는 본 구절 외에는 신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칠십인역(LXX; 출애굽기 9:24; 민수기 21:14; 시편 96:3; 다니엘[TH] 3:94)과 외경(마카베오 1서 3:5; 집회서 3:30), 그리고 위경(솔로몬의 시편 12:3)에 나타난다.[58] 출애굽기 9:24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을 내리실 때 함께 내린 '번쩍이는 불'(불덩이; τὸ πῦρ φλογίζον)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사가 사용되었다. 시편 97:3("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에서는 불이 대적을 불사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 능동태 동사(φλογιεῖ)가 사용되었다. 다니엘(Th) 3:94(단 3: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에서는 머리털이 불에 그을리지 않은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ἐφλογίσθη)가 사용되었다. 마카베오 1서 3:5("그는 범법자들을 뒤쫓아 가 잡아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자를 태워 죽였다")은 마카비라고 불리는 유다가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태우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부정과거 동사(ἐφλόγισεν)가 사용되었다. 집회서 3:30("물은 타오르는

58 민수기 21:14의 히브리어 בסופה를 헬라어 플로기조(ἐφλόγισεν [Num 21:14 BGT])로 번역한 문제는 칠십인 역에서 본문 이해를 잘 못 하고 번역한 듯하다. "여호와의 전쟁기"를 "여호와께서 수파와 전쟁하셨다(즉 와하브를 불로 태우셨다)"로 이해한 듯하지만, 동사형도 맞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나할림-아르논과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그러기 위해서는 닐함-베나할림 아르논으로 해야 한다. 마소라 본문은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바로 이해했고 그다음에 나오는 '에트'로 인도되는 두 개의 목적어(수파의 와하브와 아르논 골짜기를)와도 잘 어울린다. 칠십인역이 오해한 것은 '베-수파'인데 이것을 '수파에 있는'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로 태우다/불지르다'로 번역한다. 오해의 이유는 아마도 '수파'(סופה)를 '스레파'(סרפה)로 잘못 읽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가운데 글자 히브리어의 '와우'와 '레이쉬'를 혼동한 경우이다. '스레파'(firing, 태움)는 ש(신)으로 시작하지만, 발음상으로 ס(사맥)과 같아서 생겨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괴팅겐(BHS) f.n.에서 칠십인역 번역자가 혹시 ספפ(사파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아람어의 incendere, '계곡'으로 번역했어야만 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 큰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브와 레이쉬의 혼동일 수가 있고, 또는 모르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자기가 아는 단어로 연관 지어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칠십인역 번역자가 모르는 단어일 때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번역할 때도 많다. 문맥적으로 적절하게 자기가 아는 단어와 연관해서 그렇게 읽는 것이다(2020년 4월 3일 문자로 주고받은 김하연 박사와의 내용 중).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에서는 타오르는 불을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φλογιζόμενον)가 사용되었다. 솔로몬의 시편 12:3(" His visit [happens] to set homes on fire with a false tongue, to cut down trees of joy which inflames the lawless ones, to destroy homes by a war of slanderous lips")은 무법한 자를 태우는 기쁨의 나무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사르다'(φλογίζω)는 동사는 대부분 태우거나 태워서 멸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불의 파괴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불의 이미지가 혀의 파괴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불의의 세계'는 혀의 악한(더럽히는) 영향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듯하다. 야고보서 3:6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라 하면서 '더럽히다'(σπιλόω)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 표현은 영어 번역본에서 'stain'('더럽히다', '얼룩지게 하다'; ESV, NRSV) 또는 'defile'('더럽히다'; KJV, NASB), 'corrupt'('부패하게 만들다', '오염[변질]시키다'; NIV, NLT) 등으로 번역된다. 이 표현은 지혜서 15:4에서("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간교한 작품이나 화공의 부질없는 노력의 산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색칠을 해놓은 조각상[εἶδος σπιλωθὲν χρώμασιν] 따위에 미혹되지 않았다") 문자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어 '색칠되다' 혹은 '착색되다'로 번역된다. 유다서 1:23("그 육체로 더럽힌 옷"[τὸν ἀπὸ τῆς σαρκὸς ἐσπιλωμένον χιτῶνα])에서는 분사로 사용되어 비유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흥미롭게도 영어 번역본에서 이 분사(ἐσπιλωμένον)는 'stained'('더럽힌', ESV), 'spotted'('얼룩진', KJV), 'polluted'('오염된', NASB), 'contaminate'('오염시키는', NLT), 'defiled'('더럽혀진', NRSV)등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동사 σπιλόω가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나 비유적 의미로 사용될 때 모두 '파괴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다. 3:6a에 나타난 '불의의 세계'(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라는 표현 중에서 '불의의'에 해당하는 속격 τῆς ἀδικίας를 서술적 속격(descriptive genitive)으로 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는 '세계'는 '불의'하고,[59] 따라서 그 '불의한 세계'인 '혀'는 지체 중에 거하면서 '온몸'(ὅλον τὸ

σῶμα)을 불의하도록 더럽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야고보서 3장은 심판의 문맥에서 보아야 한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2:12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긍휼을 행하라고 한다. 저자가 그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이다(2:13). 테일러는 이처럼 말하는 것과 심판에 대한 것이 3:1-12에서 확장된다고 바르게 주장한다.[60] 그래서 저자는 3:1을 시작하면서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선생이 더 크고 엄격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내에서 맡은 역할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체 중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혀 또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61] 특히, 3:6에서는 불의의 세계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불인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

59 Moo, *James*, 159, 는 여기서 사용된 '세계'(κόσμος)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의 다른 구절에서 나타난 경우(1:27; 4:4[2회])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불의의 세계'(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는 "타락하고, 거역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계체계(world system)"를 가리킨다고 본다. Blomberg and Kamell, *James*, 157도 보라.

60 Taylor, "The Structure of James,"696-97, 는 말과 심판에 관한 것이 3:1-12에서 확장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3:1에서 심판의 문맥이 명확히 표현되어있다. 여기서 선생은 더욱 엄격한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 3:2의 '실수하다'(πταίω)는 동사의 사용은 2:8-11을 암시하고,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셋째, 3:1-12에서는 2:2-4와 2:15-16의 설명에 내재하는 말과 행동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전시킨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은 그의 성격을 반영하고 그의 행동으로 해결된다. 넷째, 2:12-13에서 시작된 인클루지오를 닫는 단락인 4:11-12은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주목해야 할 주된 문제임과 동시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구체적인 방식이었음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혀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확장된 내용이 이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주장한다.

61 몸의 특정한 부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분이 벌을 받는 것은 여러 유대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수기 주석서 시프레(Sifre to Numbers) XVIII:I.1.T에 "the limb with which she began to commit the transgression-from there the punishment begins"라고 기록한다(Jacob Neusner, *Theological Dictionary of Rabbinic Judaism: Part Two: Making Connections and Building Construction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113). 그리고 b.Ket. 5a에 "Let not your ears hear idle words, because they are burnt first of the organs"라고 기록한다(Marcuss van Loopik, *The Ways of the Sages and the Way of the World* [Leiden: Brill, 1991], 260).

불사른다고 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사르다'(φλογίζω)는 동사가 불의 파괴적 이미지를 나타낸다면, 불인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능동태 분사[φλογίζουσα])은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수동태 분사(φλογιζομένη)를 사용하여 혀가 불탄다고 한 것은 그 혀 역시 불살라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혀를 불태우는 주체는 종말적 심판의 장소인 게엔나(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이다. 이는 혀가 종말적 심판의 장소인 게엔나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야고보서 3:6의 마지막 두 문장을 종말적 심판, 곧 종말적 *ius talionis*에 관한 보편적 예로 보는 보캄의 주장은 옳다. 즉, 형벌(punishment)은 범죄(crime)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φλογίζουσα) 죄를 저지른 혀 그 자체가 게엔나에 의해서 불태워지는(φλογιζομένη)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보캄은 이와 같은 죄와 형벌 간의 언어적 상호관련성은 범죄의 대상(τῆς γενέσεως)과 심판의 대리자(τῆς γεέννης)를 나란히 배열한 언어 유희로 더 강화된다고 한다.[62] 죄와 형벌 간의 언어적 상호관련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종말적 *ius talionis*의 예는 야고보서 외에 여러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38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ἐπαισχυνθῇ)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ἐπαισχυνθήσεται)", 고린도전서 3:17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φθείρε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φθερεῖ)", 유다서 6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τηρήσαντας)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τετήρηκεν)", 요한계시록 11:18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διαφθεῖραι) 자들을 멸망시키실(διαφθείροντας) 때로소이다 하더라"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도 부정적(2:13; "긍휼[ἔλεος]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ἀνέλεος]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긍정적 종말적 *ius talionis*(3:18; "화평하게[εἰρήνην]

62 Bauckham,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123.

하는 자들은 화평[εἰρήνῃ]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를 찾아볼 수 있다.[63]

야고보서 3:7-12에서 계속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혀의 악함에 관해서 설명한다. 먼저 3:7은 γάρ로 시작하면서 앞서 설명한바, 혀가 작지만 불의의 세계로서 온몸을 더럽히고 불로서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3:7에서 저자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다고 묘사한다.[64] 그러나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 중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3:8a). 그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3:8b). 주목할 만한 사실은 3:7-8의 묘사가 하나님의 창조기사와 인간의 타락 상황을 상기시킨다는 사실이다.[65]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창 1:26. 참고. 창 1:28). 그리고 앞서 제시된 모든 생물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했다(창:9:2). 야고보서 3:7은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확증한다. 그러나 3:8에서 묘사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는 사람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오히려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교회를 파괴한다(3:6).[66] 이와 같은 혀에 대한 묘사는 평화롭던 에덴동산을 악으로 물들게 했던 마귀의 유혹을 상기시킨다. 확실히 블롬버그와 카멜은 "죽음을 가져다주는 독의 이미지는, 특히 혀가 생명을 주는 음식과 음료

---

63 종말적 *ius talionis*와 관련된 더 많은 예는 Bauckham,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123-24를 보라.

64 저자는 3:7에서 '길들이다'(tame) 또는'다스리다'(subdue)라는 의미의 동사 δαμάζω의 현재 수동태 직설법(δαμάζεται)과 완료 수동태 직설법(δεδάμασται)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짐승이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때가 없음을 강조한다. 사람은 현재에도 여전히 모든 짐승을 길들일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 참고. Moo, *James*, 126; Martin, *James*, 117.

65 McCartney, *James*, 191-92; McKnight, *James*, 287-90; Martin, *James*, 116-18; Blomberg and Kamell, *James*, 159-60.

66 McCartney, *James*, 192, 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내뿜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죽인다고 바르게 지적한다. 참고. McKnight, *James*, 289.

를 맛보는 데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적이다. 그 은유는 공격할 태세를 갖춘 뱀의 모습, 그보다 더 에덴동산에서 이브에게 했던 파괴적이면서도 기만적인 뱀의 말을 암시하는데, 그것이 낙원을 오염시켰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67]

창세기 기사에 대한 암시는 3:9에서도 나타난다. 저자는 "이것[혀]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한다. 3:7-8을 염두에 두고 볼 때, 3:9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καθ' ὁμοίωσιν θεοῦ)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68] 왜냐하면, 앞서 야고보서 3:7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 왔다는 언급을 통해 창세기 1:26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는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야고보서 3:7-9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그리고 타락을 부추겼던 마귀를 연상시킨다.[69]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와 같은 암시를 한 것은 분명 마귀와 그의 하수,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인 게엔나(3:6)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70] 즉, 앞서 3:7 이하는 그 이전의 언급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한 것과 같이 3:7-9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혀도 게엔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3:12b의 결론

---

67 Blomberg and Kamell, *James*, 160. 참고. Mayor, *The Epistle of James*. 117. 비교. Martin, *James*, 118, 은 혀의 사악한 능력을 묘사하는 것은 당시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Sibyl. Frag.* 3:32-33에서 θανατηφόρος ἰός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에서"속임수로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의 리더가 된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입으로부터 치명적인 독을 쏟아낸다"라고 한다.

68 McCartney, *James*, 192, 는 '형상'(ὁμοίωσις)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9에서만 나타나고 칠십인 역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창세기 1:26을 암시하는, 거의 확실히 의도적 사용이라고 바르게 주장한다. McKnight, *James*, 293-94도 보라.

69 본 논의는 단순히 야고보서와 창세기의 연관성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기에 더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70 참고. NIDNTT, γέεννα, 548.

적이면서도 요약적인 언급("이와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혀는 단물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3:2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라고 가정했지만 결국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71]

3. 야고보서 3:6의 문법을 고려한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고보서 3:6이 구문론적으로 복잡하고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혀와 관련하여 두 개의 이미지('불'과 '불의의 세계')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자는 3:6에서 혀의 두 이미지가 가지는 특징과 관계된 두 개의 동사('불사르다'와 '더럽히다')를 사용하여 그 혀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한다. 야고보서 3:6의 문장(*καὶ ἡ γλῶσσα πῦρ· 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 ἡ γλῶσσα καθίσταται ἐν τοῖς μέλεσιν ἡμῶν, ἡ σπιλοῦσα ὅλον τὸ σῶμα καὶ φλογίζουσα τὸν τροχὸν τῆς γενέσεως καὶ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혀가 '불'(*ἡ γλῶσσα πῦρ*)이고 '불의의 세계'(*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라고 묘사한다.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 뒤에 다시 '혀'(*ἡ γλῶσσα*)라는 주격 명사가 사용되었고 이어서 '위치하다'(*καθίσταται*)는 3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 직설법인 주동사가 등장한다.[72]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든지, 여기서 주어는 분명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혀'(*ἡ γλῶσσα*)이다.

---

71 야고보서 3:1-12에서 철저하게 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3:13-18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것을 대조하면서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3:14)고 한 이후에 이러한 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3:15)이라고 한 것은 흥미롭다. 특히 '귀신의 것'(*δαιμονιώδης*)이라는 표현은 앞서 "혀도 게엔나에 의해서 불살라질 것이다"라고 말한 3:6과 연관이 있다. 확실히 블롬버그와 카멜은 "이 용어[*δαιμονιώδης*]는 혀가 '지옥에 의해 불탄다'라고 한 3:6의 진단을 상기시키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한 4:7의 경고를 내다본다"라고 바르게 말한다(Blomberg and Kamell, *James*, 174. 참고. McKnight, *James*, 307-8).

72 3:6에서 사용된 동사 *καθίσταται*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미 논했지만, 중간태 직설법으로 보면서 혀가 스스로에게 '불'과 '불의의 세계'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거나,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위치하다'로 보아도 될듯하다. 참고. 각주 12-15.

그리고 저자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 혀가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와 같다고 묘사한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세 개의 분사구가 나타난다. 첫 번째 것에는 동사 '더럽히다'(σπιλόω)의 현재 능동태 분사(σπιλοῦσα)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사구에는 '불사르다'(φλογίζω)는 동사의 분사가 반복해서 사용된다. 두 번째 분사구에는 현재 능동태 분사(φλογίζουσα)가 사용되었고 세 번째 것에는 현재 수동태 분사(φλογιζομένη)가 사용되었다. 문장구조로 보았을 때 '혀' - '불' - '불의의 세계' - '혀' - '위치하다' - '더럽히다' - '불사르다' - '불살라지다'는 순서로 되어있다. 저자는 먼저 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불'과 '불의의 세계'를 사용하여 그와 같은 혀가 지체 중에 있다('위치하다')고 언급한다. 그런 후에 앞서 혀를 묘사한 두 개의 표현 중에서 두 번째 것인 '불의의 세계'가 가진 악한 영향력을 묘사하는 동사 '더럽히다'가 먼저 나타난다. 이는 어쩌면 서술의 편의상 역으로 '불의의 세계'의 특성을 묘사하는 동사를 먼저 사용한 듯하다. 그런 후에 '불'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묘사하는 '불사르다'는 동사를 사용했다. 이처럼 볼 때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이 비록 3:6의 구문론적 설명과 번역이 쉽지 않지만, 이 문장에서 제시된 혀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특징짓는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혀는 몸의 작은 지체지만 불과 같이 파괴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와 같이 온몸을 악으로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은 혀의 큰 능력을 더 강조하고자 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야고보서 3:6의 문장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을 듯하다.

καὶ ἡ γλῶσσα	(주어: 혀)
πῦρ·	(보어: 불)

ὁ κόσμος τῆς ἀδικίας (보어: 불의의 세계)
ἡ γλῶσσα (주어: 혀)
καθίσταται ἐν τοῖς μέλεσιν ἡμῶν, (주동사)
ἡ σπιλοῦσα ὅλον τὸ σῶμα
(분사구 1-불의의 세계인 혀:몸을 더럽힘)
καὶ φλογίζουσα τὸν τροχὸν τῆς γενέσεως
(분사구 2-불인 혀:인생을 불태움)
καὶ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분사구 3-불인 혀: 게엔나에 의해 불탐)

앞서 마지막 분사 두 개는 '불사르다'(φλογίζω)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φλογίζουσα)와 현재 수동태 분사(φλογιζομένη)가 사용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한 것은 그 혀의 파괴적인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다. 따라서 '불사르다'(φλογίζω)의 능동태 분사를 사용하여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묘사한 것은 혀가 주체가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그렇다면 혀를 주어로 하여 앞서 사용된 '불사르다'(φλογίζω)의 수동태 분사형이 사용된 마지막 문장(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처럼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로 번역하는 것은 어색하다.[73] 오히려 "[혀가] 게엔나에 의해서 불태워진다[불태워질 것이다]"로 번역해야 한다.[74] 그리고 이는 말 그대로 혀가 게엔나에 의해서 불살라지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처럼 혀가 게엔나에 의해서 불태워진다고 번역은 하면서,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이 게엔나임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색하다. 만약에 이와같이 해석을 한다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

73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지옥 불'로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단순히 '게엔나'(γεέννης)만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대부분 '지옥'으로 번역된다(마 5:29, 30; 10:28; 23:15; 23:33; 막 9:45, 47; 눅 12:5). 몇 군데에서 '지옥불'로 번역된 곳이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불'에 해당하는 표현(πῦρ)이 나타나야 한다(참고. 마 5:22; 18:9; 막 9:43).

74 '불태워진다'(φλογιζομένη)는 분사는 현재형이지만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미래 분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Bauckham,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123, n. 20을 보라.

나니"라는 문장 역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삶의 수레바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삶의 수레바퀴가 [혀에 의해서] 불살라진다"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인생 전체를 지칭하는 삶의 수레바퀴가 내뿜는 불의 근원이 혀임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75]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사르다'는 동사를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는 보편적으로 혀가 내뿜는 불의 근원이 '게엔나'(γέεννα), 곧 지옥의 불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고대의 유대 문헌에서 게엔나는 사탄이나 악의 세력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나 지상 세계에 악한 능력을 제공하는 근원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게엔나는 미래의 심판 장소로서, 사탄 또한 그곳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로 여겨진다. 야고보서 3:6의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저자는 작은 혀의 큰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럽히는 이미지와 파괴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 즉, 혀는 불의의 세계로서 온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불로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혀는 3:1-12에서 제시하는 심판의 문맥에서 보았을 때,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처럼(3:1),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종말에 게엔나에 의해서 불태워질 것이다(3:6). 이는 3:6의 마지막 문장(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의 문법적 해석의 지지도 받는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혀는 게엔나에 의해서 불태워진다. 따라서 이제껏 살펴보았던 문장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는 "[혀도] 게엔나에 의해서 불태워진다[불태워질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하고, 혀가 게엔나에 의해서 심판

75 '불사르다'(φλογίζω)는 동사를 개역 개정 성경 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3:6b는 "...삶의 수레바퀴에 사르는 것을 제공하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가 되어야 한다.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옳다.

[참고문헌]

Adamson, J. B. *The Epistle of Jam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9[1976]).

Barclay, W.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Bauckham, R. "The Tongue Set on Fire by Hell(James 3:6)" in *The Fate of the Dead: Studies on the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ses.* Leiden: Brill, 1998, 119-31.

_____. *James: Wisdom of James, Disciple of Jesus the Sage.* London: Routledge, 1999.

Blomberg, C. L. and Kamell, M. J. *Jame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Bray, G.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ames, 1-2 Peter, 1-3 John, Jud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0.

Calvin, J.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J. Owen. Edinburgh: T. Constable, 1755.

Davids, P. H. *The Epistle of Jame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2.

Dibelius, M.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1975].

Johnson, L. T. *The Letter of James* AB 37A. New York: Dobuleday, 1995.

Johnstone, R. *A Commentary on Jame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1871].

Laws, 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London: A. & C. Black, 1980.

_____. *The Epistle of James* BNTC. Massachusetts: Hendrikson Publishers, 1980.

Loopik, Marcuss van, *The Ways of the Sages and the Way of the World.* Leiden: Brill, 1991.

MacArthur, J.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ames.* Chicago: Moody Publishers, 1998.

MacCulloch, J. A. *The Harrowing of Hell.* Edinburgh: T. & T. Clark, 1930.

Martin, R. P. *James* WBC 48. Waco: Word Books, 1988.

Mayor, J. B. *The Epistle of Jam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s.* 2nd e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897.

McCartney, D. G. *Jame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McKnight, S. *The Letters of Jam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11.

Mitton, C. Leslie. *The Epistle of James.*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66.

Moo, D. J. *James* TNTC 16. IL: InterVarsity Press, 2015.

Neusner, Jacob. *Theological Dictionary of Rabbinic Judaism: Part Two: Making Connections and Building Construction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Nolland, John. *The Gospel of Matthew* NIGTC.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5.

Richardson, K. A. *Jame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Ropes, J.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 T. & T. Clark, 1973[1916].

Saldarini, Anthony J. "Delegitimation of Leaders in Matthew 23," *CBQ* 54 (1992), 659-80.

Shepherd, Jr. M. H. "The Epistle of James and The Gospel of Matthew," *JBL* 75(1956), 40-51.

Stulac, George M. *James* IVPNTC 16. Leicester: InterVersity Press, 1993.

Taylor, M. E. "The Structure of James," *CBQ* 68(2006), 681-705.

Vlachos, Chris A. *James: Exegetic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Nashville: B & H Academic, 2013.

Watson, D. F. “The Rhetoric of James 3:1-12 and A Classical Pattern of Argumentation,” *NovT* 35(1993), 48-64.
강대훈. “마태복음의 게헨나 연구,” 「신약연구」14(2015), 8-38.

[Abstract]

The mat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in James 3:6

Ki Cheol Joo
(Kos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New Testament Theology)

According to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NKRV), the last participle phrase in James 3:6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is translated as "the flaming fire is from hellfire." Most English versions, however, translate the phrase into "the tongue is burned by hellfire," although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in details. When looking at translations like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NKRV understand the participle phrase as to mean that hell is the source of the flame of tongue, whereas English translations see the tongue as an object to be burned by hell.

Despite the translations of most English Versions as seen above, many scholars understand that the phrase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refers to Hell being the source of fire emitted by the tongue. In other words, even though most scholars follow English translations, they interpret it like the NKR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phrase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should be translated and interpreted. First of all, several scholars who had foregoing views on the phrase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will be examined. Afterwards, the meaning of the word translated into 'hell'(γεέννηα),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terpreting the phrase, will be observed. After discussing how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should be translated on the basis of grammar and

context, we will discuss how to understand this passage in the conclusion. I will argue that φλογιζομένη ὑπὸ τῆς γεέννης should be translated as most English versions do; that it is more desirable to interpret it as referring to the tongue as the object of judgment.

Key Words: James 3:6, gehenna, judgement place, final judgement on tongue, translation of James 3:6, interpretation of James 3:6.